

-(으)ㄴ/는 실정이다

~하는 형편이다, 실제 사정이 그러하다

실제로 일이 어떤 상태인지, 대개 좋지 않은 상태를 전합니다. 실정은 '실제 사정'이라는 뜻이며,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보고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형용사	-(으)ㄴ 실정이다	부족하다 → 부족한 실정입니다
동사	-는 실정이다	의존하다 → 의존하는 실정이다
ㄹ 받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실정이다
상황은	만족스럽지 못함	당위와 실제 사이의 차이
띄어쓰기	실정은 명사	부족한 실정이다
구어 표현	상황이다	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에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실정이다, 형용사는 -(으)ㄴ 실정이다를 씁니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실정은 띄어 씁니다.

묘사하는 상황은 거의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것입니다. 실정에는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: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

이 표현은 책임을 묻지 않고문제를 말하는 방법이며, 그래서 공식 보고서나 브리핑에 늘 등장합니다.

격식 있는 문어체입니다. 구어에서는 상황이나 평범한 서술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■ 예문

- 1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.
- 2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.
- 3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4 제도는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.
- 5 부품을 직접 만드는 실정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.
- 6 지원은 늘었지만 현장까지는 잘 닿지 않는 실정입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데 있다

데 있다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짚고, 실정이라는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. 진단과 묘사의 차이입니다.

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데 있다. (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) /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. (사정이 그러하다)

-(으)ㄹ 지경이다

지경이라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으로,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. 실정이라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입니다.

쓰러질 지경이에요. (곧 쓰러질 것 같다) /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 (인력이 모자란다)

상황이다

상황은 어떤 상황이든 가리키지만, 실정은 실제 상태가 마땅히 그래야 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

바쁜 상황이에요. (바쁘다) /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. (예산이 충분하지 않다)

■ 주의

✗ 매출이 크게 늘어난 실정입니다.

○ 매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.

실정에는 부족함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. 좋은 소식에는 상황이나 평범한 서술을 씁니다.

✗ 부품을 직접 만드는 실정이다.

○ 부품을 직접 만드는 실정이다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어디에서나 그렇듯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
✗ 야, 지금 돈이 없는 실정이다.

○ 야, 지금 돈이 없어.

실정이라는 보고서 용어입니다. 대화에서 쓰면 브리핑 자료를 읽는 것처럼 들립니다.